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기현호



'1/3이 1/2보다 크다'

초등 4학년생인 게르트는 어느 날 선생님이 초콜릿을 1/2 준다고 하니 너무 적다며 1/3을 주라고 졸랐다. 그 사실은 곧바로 교내에 퍼졌고 저학년 꼬마들조차 그것도 모르니 놀라웠다. 하지만 게르트는 비웃는 그들이 이상할 뿐 2보다 3이 크다는 믿음을 접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산수를 못해 조롱을 받았지만 공부는 뒷전이었고 오로지 공부만 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골키퍼가 된 독일의 축구 영웅 게르트 뮐러(Gerd Mueller: 1945~)다. 2차대전 패전 후 피폐해진 서독에서 그는 어린시절을 힘들게 보냈다. 학교도 때려치고 지역 유소년팀에 입단했지만 감독에게 '너는 축구로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 그만 두라'는 편지를 들어 섬유공장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선수지망 초·중학생 없어

하지만 굴하지 않고 축구에 매달렸다. 결국 19세인 1964년 베켄바우어, 마이어가 활약하는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면서 그의 천재성은 빛을 본다. 그는 축구장에만 서면 필멸 날았고 '골이 있는 곳에 뮐러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골을 넣는 데는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했다. '득점기계'라는 별명답게 70년 멕시코 월드컵 10골을 비롯 월드컵 14골의 기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기

록을 세우고 74년 월드컵에서는 서독을 우승으로 이끈다.

뮐러의 이야기는 전형적이고도 고전적인 운동선수의 성공이다. 전후 암울한 국가경제, 가난한 살림살이, 이 때문에 정규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휴먼지구석에서 천덕꾸러기처럼 공만 가지고 노는 불우한 청소년기. 그러다 해성처럼 나타나는 스포츠 스타들의 주변환경과 성장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이렇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운동선수가 되려면 일단 가난하고, 공부는 못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어야 했다. 구박하고

구타를 해도 오갈데 없이 다시 돌아오는 환경이 좋은 선수조건이었고 그 고통을 인내력, 담력이라고 포장하며 감내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개천에서 온 나던 시절은 지났다. 국내외에서 뛰고 있는 골프선수들이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1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선수의 역량도 투자액에 비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하려는 학생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 중학부 야구에서 달랑 9명 출전해 우승한 경남 김해 내동중 학생들은 '내년 우승보다 선수 9명이 맞추는 것이 더 급하다'고 우승소감을 대신했다.

소년체전에 겨우겨우 선수를 맞춰 출전한 팀들이 많았다는 게 체육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광주 모 초등학교 감독은 선수들이 혹시 그만둘까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자선수들을 위해 머리핀을 사러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귀한 자식을 운동선수로 키우려는 부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빛어지는 현상이다. 박지성이나 최경주처럼 대성하기는

커녕 국내 프로선수로 뚝다는 보장도 없어, 결국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낙오자가 되는데 모험할 부모는 없다.

대회성적 요구 대입제도 폐지

방법은 학부모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기'가 최선책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운동부가 따로 없이 흥미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도록 해서 엘리트체육의 기초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업은 다 하고 운동은 무조건 방과 후나 방학 때만 해야 하며 운동성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운동만 원하면 전문학교·클럽으로 보내고 공부도 함께 하겠다면 고교로 진학시키면 된다. 장기간 합숙도 금하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도록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

선수들을 운동장으로 내모는 전국대회 4강, 8강 같은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입시제도 폐지도 선결과제다. 대학에서는 체육교사나 전문종목 지도자, 트레이너,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건강 관련업종 창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과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선수로 성공하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리지 않는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전국의 우체국장님께서는 매우 불경스런 얘기일지 모르지만, 술자리에서 우체국장 술잔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이렇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이야기다. 고강의 기관장 모임에 당연히 우체국장도 참가하는데 술잔이 주로 힘겨나 쓰는 기관장들에게만 집중된다보니 우체국장 술잔은 항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이런 연유로 회식자리에 잔이 자주 가지 않거나 술잔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 우체국장 술잔이라고 빔어 말하게 된 것이다.

에. 지금은 정보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루어 술잔이 가졌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작은 잔을 주고 받는 것에서 출발하여, 말을 주고 받는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잔을 주고 받다보니 정도 주고 받았을까? 공음례와 대포지고(大砲之交)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강력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 공음례가 바로 보부상인데 이들은 큰 대포탄에 술을 부어 같이 마시는 의식을 치루고 공음례의 일원임을 스스로 다짐했다. 여기서 기원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이를 '대포지고'라 했다. 공음례의 전통은 보부상만 그런 것은

우체국장 술잔

로 따라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술자리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어느 문화에서나 술잔과 그 잔에 술을 담아 마시는 행위에는 각별한 뜻이 담겨있다.

아니었다. 육조 삼관을 비롯한 관아에서도 큰 술잔에 술을 부어 같이 마시는 공음례가 의식화됐다고 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식을 하면서 사발식을 하는데 그 의식도 어쩌보면 매우 전통있는 공음례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오늘날 대학생들의 사발식은 자랑하는 자리로 왜곡된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음식문화에 압축돼 있다"고 했다. 음식문화에서 술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나라의 음주법을 알면 그 나라의 음식문화와 놀이 문화, 대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장 술잔'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 문화와 독특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보혜양조 홍보실장·2005년 8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주차할때 차량에 연락처 남기는 것은 기본 매너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소통이 불편하다는 신고 전화다. 신고자들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위 차량들에 대해 이동조치나 강제 견인을 해라라고 빼달라는 것. 하지만 불법주·정차구역이 아닌 댕크로 견인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 전산망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소

유자의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차량 주소지가 타지역일 경우에는 알기 힘들어 경찰관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 앞이나 사무실에 주차하는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승현·목포경찰서 상동지구대

기고



한대웅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 쇠고기 만 큼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드물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 맛스런 풍미를 지닌 탓에, 지금은 외국인들도 '남버 원'으로 찾는 음식이 된 지도 이미 오래다.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의 고기구이인 '맥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맥'이란 중국의 동북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고구려를 지칭한다. '맥적'이란 꼬챙이에 끼워 미리 조미해둔 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는 15년에 걸쳐 매년 2.7%씩 감축돼 15년 후에는 완전 철폐가 된다.

한울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매년 2.7%씩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개방시대에 한우가 살아남을 길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최근 한우 산지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졌다고보다는 안정을 찾아가

한우, 불고기와 같이 지키자!

를 직화에 굽는 것으로, 석쇠가 나온 다음에는 꼬챙이에 꿰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과 같은 불고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불고기 자체 영양도 영양이러니와 양념의 영양도 다른 음식과 비할 바가 못된다. 쌀밥, 채소와 더불어 불고기의 양념에 사용되는 마늘·파·참기름·생강즙·배즙·깨소금 등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음식이기 이전에 예방 의학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불고기를 먹을 때는 대개 상추·숙채 등 채소에 싸서 먹게 되는데 이는 섬유질과 비타민C의 공급원이 된다.

또 불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을 준다.

차치하고, 지난 4월 초 한미 FTA 타결로 한우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현재 40%인

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성 싶다.

6개월짜리 암송아지 가격은 222만원으로 협상 전보다 36만원 떨어졌다. 600kg 암송아지 481만원으로, 48만 원 가량 떨어졌다. 산지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한우도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춰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한우를 식탁에 올려야 한다. 단순히 우리 것이니까 먹자는 것이 아니다.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우 소비를 늘리면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두 배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신도불이를 외면할 때 부지불식간에 외국인들이 우리 결을 어슬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축산경제팀 차장>

노래방 도우미랑 놀고난 뒤 신고 협박 행위는 파렴치

노래방을 하는 친구가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손님들이 노래방에 찾아와 "맥주 달라", "도우미 불러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친구는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어렵게 말을 하지만 장사가 싫으면 관두라고 나가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유용 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 뿐만 아니라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서도 안된다. 가족들끼리 가서 즐기는 노래방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장사하는 업자 입장에서 불경기에 한없이 아슬아슬하다. 하는 수 없이 꼭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어쩌다 한두번 해

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수입 욕심에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신나게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나중에 계산할 때 "도우미 불렀으니 신고한다"고 반 협박조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그냥 달래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노래방 주인이다.

이런식으로 술 얻어먹고 여자 도우미 불러 즐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받을까 두려워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약자의 불법을 약점으로 삼아 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시설

구멍뚫린 총기류 관리 대책 서둘러라

주요인사 저격용 등으로 쓰이는 미국산 자동소총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양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미국산 16연발 레밍턴 자동소총 등을 불법거래하거나 소지한 일당 4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광주·전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더 이상 총기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레밍턴 소총은 200m 떨어진 곳에서 도, 농, 코, 입 등 신체의 특정부위까지 정확히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소음이 작아 잘 보이지 않으나 소리가 매우 크다. 이렇게 위험한 살상용 총기가 어떻게 국내에 반입됐으며 그것도 조폭 두목의 손에까지 들어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총기류 관리감독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총기류 밀반입 시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밀반입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8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25건이나 됐다. 지난해 2003년에는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간의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도 총기 사건 발생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총기 범죄는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 총대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총기는 강도나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 테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번 저격용 소총의 국내 유통을 계기로 총기류 밀반입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총기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밀매조직이나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총기류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총기 범죄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근태 '대선 불출마' 파장 주시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로선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정동영 전 의장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최대 주주인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범여권 대통합의 밑거름'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건 전 총리 및 정운찬 전 총장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범여권 통합과 대선통합 경쟁구도 등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여권은 한심한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해산 직전에 몰려 있고 탈당파와 민주당 등 각 정파는 소통합이니 대통합이니 통합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 한 배경에도 대선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지부진한 대통합에 따른 답답한 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의 대선구도가 정상일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7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지만 범여권은 뚜렷한 구심점 없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인사들만 15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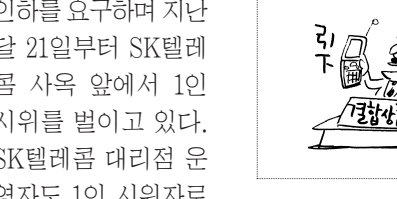
국민들은 지리멸렬한 범여권에 실망하고 있다. 범여권은 사분오열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고 통합의 기본 틀마저 논의하지 못한 채 후보들만 후추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상대는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장수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기 주장이나 기득권을 고집해선 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지지를 한자리수 주자들이 통합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정국을 냉철히 판단하길 바란다. 범여권의 자기성찰을 주시한다.

無等鼓

이동통신사들이 다음달 통신결합상품 출시를 계기로, 휴대전화 요금을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신결합상품은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 등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인 듯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기로 한 것은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YMCA는 문자전송·가방비·기본료·발신번호표시 등 4가지 휴대전화 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도 1인 시위자로 나서, 회사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업계는 요금인하 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대부분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요금인하 효과는 광범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금인하는 어디까지나 결합 상품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증이 가혹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요금인하'로 청소년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유혹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통신 기능을 다하게 하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증이 갈수록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소비자단체들의 요금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소년을 유혹, 이속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속셈에 다를 바 없다.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조사

발표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한 휴대전화 중독증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다.

이동통신사들은 잇속 챙기기보다는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요금인하를 결합상품과 결부시키는 공리에서 제발 벗어나길 기대한다. /김우성 경제부장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